



내면의 목소리

소명
단편 소설

작가: CHRISTIE GOLDEN

스토리

DELILAH S. DAWSON

일러스트

OGNJEN SPORIN

편집

CHLOE FRABONI, ERIC GERON

세계관 자문

COURTNEY CHAVEZ, SEAN COPELAND

창작 자문

STEVE AGUILAR, ELY CANON, STEVE DANUSER,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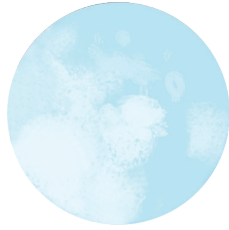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CARLOS RENTA

디자인

COREY PETERSCHMIDT, JESSICA RODRIGUEZ



© 2024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 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바람이 수염을 덩수룩하게 기른 나그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사내는 이곳이 감고 있던 눈을 떴다. 탁 트인, 푸르고 온화한 땅을 시야에 한껏 담았다.

파도현자라는 마법사 집단이 있다. 물과 바람을 다루는 데 능통한 이들은 수 세대에 걸쳐 선박과 뱃사람들을 보호해 왔고, 스톨송 계곡은 이런 파도현자들이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터전이었다. 그러나 반짝이는 바다 근처에 자리한 이 작은 마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강력한 마법을 상징하는 웅장한 기념비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이곳은 어느 모로 봐도 쿨 티라스의 곡창 지대 중 하나였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 보리밭과 밀밭 위를 거닐며 속삭이고, 마법이라고 해봤자 물과 물레방아가 만들어 내는 조화가 전부였다. 자연의 힘을 동력으로 바꿔, 평범한 양민이 배를 주리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보살피는 데 쓰이고 있었다.

산뜻한 물레방아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노래처럼 귀를 간지럽혔다.

저 아래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그네가 소지품을 묶어 파묻어 놓은 동굴 근처였다. 이 소리는 꼭 어떠한 '끝'을 논하는 듯했다.

얼마 전부터 방랑 중인 안두인 린은 좀처럼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비쳐 보이는 풍경에서 스스로를 정갈하게 씻어내고 싶었다. 정신과 영혼에 스며든 죄악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싶었다.

내가 죽일 뻔한 친구들은..... 내가 결백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날의 고해 이후로 몇 년이 지났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같다.

이 손이 성스러운 빛으로 따뜻한 온기를 발산하던 시절도 있었다. 육신을, 영혼을 치유하곤 했다. 왕국을, 세계를 지켰다.

안두인이 손을 꼼지락거렸다. 몸이든 손이든 가만히 놀리고 있으려니 불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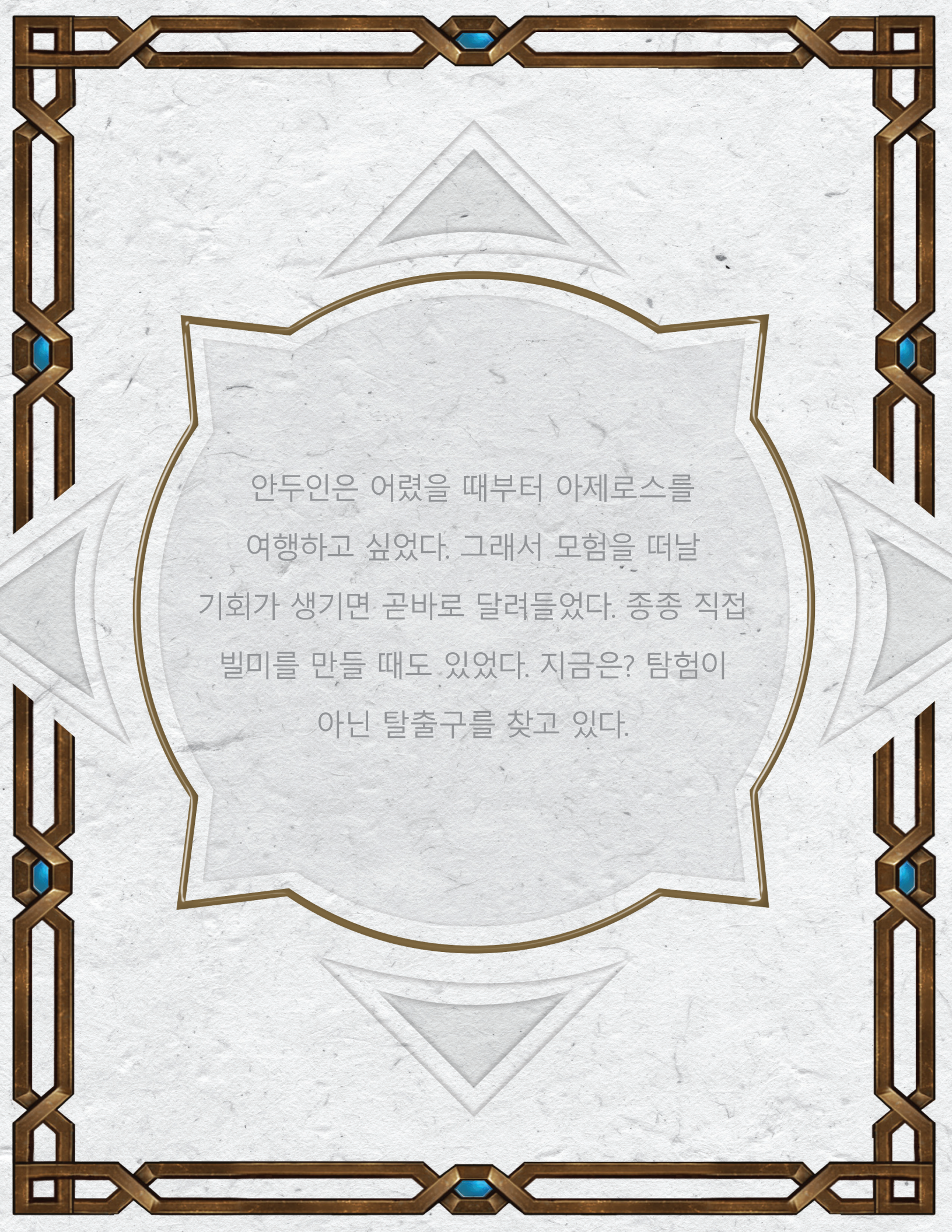
안두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제로스를 여행하고 싶었다. 그래서 모험을 떠날 기회가 생기면 곧바로 달려들었다. 종종 직접 빌미를 만들 때도 있었다. 지금은? 탐험이 아닌 탈출구를 찾고 있다. 홀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하루 끼니를 때우거나 잠자리를 얻을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했다. 그놈의 잠이라는 게 항상 위안만을 주진 않았지만서도. 잠은 안두인에게 진정한 휴식을, 하물며 단순한 망각조차 선물해 주지 않았다. 오히려 밤의 공포를 보낸 탓에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날 때가 부지기수였다.

어떤 면에서는 깨어 있는 정신이 더 나은 친구이기도 했다. 안두인은 수많은 장소를 다녔지만,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은 단편적일 뿐이었다. 때때로 정신이 조각난 기억을 기워 붙이기도 했다. 문제는 기워 붙인 그 형태가 안두인이 진심으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는 사실이었다. 오히려 심상에 떠오른 기억이 처음 그 상처를 입었을 때보다 더 끔찍했다.

그나마 환경을 바꾸면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무언가를 접할 수 있으니까. 안두인은 그렇게 내면의 악마와 숨바꼭질을 하며 바쁜 생활을 이어나갔다. 기실 진짜 악마보다 훨씬 독한 놈이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또다시 새로운 장소로.

쿨 티라스로 향하는 뱃길에서, 안두인은 늘 그랬던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안두인은 객실 안에서만 머물렀다. 그가 밖으로 나올 때는 단 하나뿐이었다. 객실 벽이 감옥처럼, 자신의 공포와 시큼한 땀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할 때는 갑판 위로 올라왔다. 안두인은 선원들이 매듭을 만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 자기도 매듭을 만들었다. 여행을 통해 습득한 재주였다. 배가 정박한 후, 안두인은 선술집을 찾았다. 어두운 구석에 앉은 그는 스투 한 그릇을 시켰다.

안두인은 술잔을 벗 삼아 위안을 얻는 습관은 없었다. 물론 술잔에 깊이 파묻히고 싶은 유혹을 느꼈던 적도 있었다. 몸이 의지와 다르게 멋대로 움직이거나, 타락에 물든 아버지의 검을 손에 쥐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꿈을 술의 바다에 빠뜨려 잠재우고 싶었다. 하지만 안두인은 그런 기억을 안고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자제력을 잃는 것뿐임을 알고 있었다.



안두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제로스를
여행하고 싶었다. 그래서 모험을 떠날
기회가 생기면 곧바로 달려들었다. 종종 직접
빌미를 만들 때도 있었다. 지금은? 탐험이
아닌 탈출구를 찾고 있다.

안두인은 음식 맛은 안중에도 없이 입에 옥여넣으며 귀를 활짝 열었다. 이런저런 소식과 풍문을, 누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정보를 그러모았다. 그리고 스톱송 계곡이 무척이나 호황을 누리고 있어 농작물 수확이나 경작, 곡물 빻는 일을 도울 일꾼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랄루스에서 계곡까지 한참을 걸었다. 그 사이 안두인은 차분해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항구의 번잡함에서 바다의 고요함과 잔잔함, 안정적인 박자를 느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풍경일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두인은 획 돌아서서 있지도 않은 검을 향해 손을 뻗었다. 검은 저 아래 동굴에 고이 숨겨두고 온 뒤였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자리를 차지하던 그 검. 안두인이 당황하는 모습을 본 중년의 남성은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고는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중년의 사내는 밝은 푸른 눈의 소유자였고,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은 모두 회색이었다.

“미안하네. 이 다리로도 조용하게 움직이는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말이야.” 남자가 손짓했다. 그제야 안두인은 중년의 남자가 다리를 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팡이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건대 다리를 심하게 다친 뒤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듯했다.

‘내가 고쳐줄 수도 있는데.’ 안두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는 걸 떠올렸다.

중년인이 말을 이어나갔다. “이곳에서 아내에게 청혼했지. 4차 대전쟁에 참전하러 떠나기 전에 여기서 마지막 일몰을 봤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처음으로 일몰을 봤다네. 그때의 그 풍경이란.....” 중년인이 한숨을 쉬며 침묵했다. 안두인은 낯선 사람이 말끝을 흐린 게 오히려 기꺼웠다. “뭐, 마음은 고요함을 갈구하기 마련이지. 단순한 아름다움이라고나 할까. 성장하고 변화하는 게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이고. 로드릭 펠든이라고 하네.”

“제렉이라고 합니다.” 안두인이 전부터 써오던 가명이었다. 지금보다 단순했던 어린 시절, 책임으로부터 도망칠 때 사용하기도 했고. 지금은 훨씬 더 어두운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지만.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나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네. 자네의 소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제렉?” 중년인은

여상하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안두인은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가 튀어나와 숨이 턱 막혔다.

소명이라.

안두인은 사제직과 자신의 검술 교사였던 아이언포지 출신의 젊은 전사, 애린 스톤핸드를 떠올렸다. 애린 스톤핸드는 그를 '드워프의 방식대로 단련시켜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머잖아 왕자가 고통을 주는 데는 적합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를 해칠 성격이 못 된다고 말이다. 애린은 안두인이 성스러운 빛을 받드는 사제가 되면 대성할 거라고 했다. 마그니 브론즈비어드도 같은 의견이었고.

안두인 본인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다. 언제나 성스러운 빛이 주는 평안함에, 고요함에 매력을 느꼈으니까.

‘평생 평화를 좇았지. 그런데 정작 한 번도 평화를 누리진 못했어.’

바다 옆 너른 들판. 탁 트인 하늘. 광활한 땅. 힘겨운 육체 노동. 이 장소, 이 일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스러운 빛이라면 알고 있겠지. 다른 존재들은 몰라도.

안두인은 자신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로드릭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웬만한 일은 다 할 줄 압니다." 로드릭의 당황한 시선이 날아들었다. 안두인은 말을 덧붙였다. "나름대로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허우대도 튼튼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요."

로드릭은 안두인의 너털너털한 망토와 진흙투성이 장화, 덩수룩한 수염, 후줄근한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꽤 멀리서 온 모양이구먼, 젊은이. 어디서 왔나?"

안두인은 경계심을 세웠다. "그게 중요합니까?"

로드릭은 사람을 뜯어보는 시선으로 그를 한참 응시했다. "좀 예민해 보이는군. 배도 고파 보이고. 자, 받게. 시장기가 좀 가실 걸세." 로드릭이 배낭에 손을 뻗어 빵 한 덩이를 꺼냈다.

안두인은 빵을 건네받았다. 빵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위장을 자극했다. 로드릭은 들성들성 세워진 풍차를 바라보며 끄덕였습니다. 풍차 날개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저 멀리 홀로 떨어진 물방앗간이 보였다. 수로를 따라 흐르는 강줄기가 커다란 바퀴를 돌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밀과 보리를 담은 자루가 높이 쌓여 제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닭들은 부지런히 곡물을 쪼느라

바빴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소담한 오두막이 있었다. 말과 염소, 새끼 염소가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저 물방앗간은 내 소유일세. 빵이나 염소젖은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여우만 잘 내쫓으면 달걀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지. 일은 좀 힘들 걸세. 근데 자네는 괜찮다고 했지? 보수는 합당하게 챙겨줄 거야. 이것저것 숙지하긴 해야겠지만, 배움이 빠른 편이라니 금방 끝날 테지. 교육이 끝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러 비품을 챙겨주겠네.”

로드릭은 안두인이 할 일을 헤아렸다. 맷돌 상태 점검, 곡물을 밀가루로 빻기, 기계장치 유지보수, 주문 접수 등—

“잠시만요.” 안두인이 끼어들었다. 목이 옥죄는 기분이었다. 예상외의 소리를 들은 탓이었다. “농부들이 이곳으로 곡물을 가져온단 말씀입니까? 얼마나 가져오는 거죠? 또, 얼마나 자주 옵니까?”

동요해서 그런지 스스로도 언성이 높아진 것을 안두인은 느낄 수 있었다. 손바닥이 점점 축축해졌다. 안두인이 원하는 건 고립 생활이었다. 그런데 이대로는 정반대로 가고 말 것이다. 안두인은 마치 내면의 문이 하나씩 닫히듯, 점차 폐쇄적으로 변해갔다. 이곳도 겉보기에만 쾌적해 보였을 뿐,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아, 예전에는 수시로 방해를 받았지. 전쟁이 끝난 후에는 가족과 함께 마을로 옮겼네. 아내는 지금 제빵점을 운영하고 있지. 지루한 일이나 주문은 내가 처리한다네. 힘든 일은 젊고 튼튼한 친구들에게 넘겼고.” 로드릭은 아쉬운 듯 웃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생각이었지만, 진득하게 일하는 이는 한 명도 없었네. 너무 외롭다고 하던가—”

“이 일, 하겠습니다.”



과연 로드릭의 경고대로 배울 것이 꽤 많았다. 중년인은 물레방아의 무언가 이상이 생기진 않았는지 ‘듣는’ 방법과 복잡한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엄지와 검지로 밀가루의 고운 정도를 구분하는 ‘엄지의 법칙’이라든지, 맷돌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염소젖 짜는 법, 말에 안장 씌우는 법, 닭을 괴롭히는 여우를 잡는 덫을 만드는 법 등을 배워야 했다.

안두인은 열성적으로 가르침을 흡수해 나갔다. 어쨌거나 이제 일을 시켜도 되겠다,

로드릭이 빨리 판단할수록 안두인도 일찍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안두인은 질문이나 대답 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로드릭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로드릭은 친근하게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다. 주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제빵점 운영은 물론이요 직접 빵도 만드는 아내 베라, 안두인보다 10살 어린 아들 벤, 딸 신다 등.

“신다는 아직 어리지만 내가 아는 어떤 어른보다 똑똑하다네. 제 어미를 닮았어.” 로드릭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의 미소를 지었다.

안두인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가족은 로드릭의 가족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머니는 안두인이 태어나자마자 폭력에 휘말려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상처를 입고 떨어져 지냈다. 여인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고. 로드릭이 4차 대전쟁에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두인은 더욱더 말을 아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쿨 티라스에 직업 군인이 많지 않았네.” 로드릭이 말했다. 안두인은 다양한 정도로 갈아낸 밀가루를 손으로 걸러내고 있었다. “대다수가 징집된 사람들이었고, 이 지역 출신은 대부분 전쟁 무기를 다루는 법에 익숙하지 않았네. 그도 그럴 게 이 마을 사람들은 농부나 방앗간지기, 양봉업자였으니까. 내가 처음 검을 쥐었을 때 얼마나 꿀볼견이었는데!” 로드릭이 껄껄 웃다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눈빛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다 보니 곧잘 다루게 되더군.”

안두인은 숨이 막히고 가슴이 쿵광거렸다.

흰색 천으로 감싼 시신들이 뒹아버린 항구 나무 바닥에 줄줄이 놓여 있었다. 갑옷을 걸친 허름한 행색의 병사 몇몇이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겐의 말이 들려왔다. “저 병사들이 마지막일세. 다음에는 농부들을 부를 거야.”

“제렉?”

“죄송합니다.” 안두인이 더듬거리며 답했다. 그는 밀가루 한 주먹을 짊어 손을 쳐다보았다. 안두인은 밀가루를 후드득 떨구고는, 무어라 변명을 중얼거리며 재빨리 방앗간을 나갔다. 난데없이 숨이 턱 막힌 탓에 공기가 필요했다.



교육을 끝마친 후, 안두인의 일과는 단순해졌다. 자루를 들어 옮기고, 곡물을 맷돌

흰색 천으로 감싼 서신들이
뒹아버린 항구 나무 바닥에 줄줄이
놓여 있었다. 갑옷을 걸친 허름한 행색의
병사 몇몇이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겐의 말이 들려왔다.

"저 병사들이 마지막일세.
다음에는 농부들을 부를 거야."

갈대에 넣고, 밀가루를 포장하고, 장비를 보수하고, 동물을 보살피는 생활이었다. 매시간 물레방아가 잔잔하게 물 튀는 소리를 내었다.

로드릭이 알려준 할 일 중에서 안두인이 유일하게 소홀했던 건 여우를 잡을 덫을 놓는 것이었다. 여우가 딱히 닭을 건드리지 않고 있기도 했거니와, 안두인은 생물을 죽인다는 발상 자체가 싫었다. 그 생물이 무슨 짓을 벌일지는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또, 항상 감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데다가 여우가 낮 시간대에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엔 해 질 녘에 날카롭게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정도였다. 그러다 별을 구경하러 나온 밤이면 난로 불빛 바로 바깥을 서성이는 어두운 형체가 보였다. 한 쌍의 형형한 눈빛은 두려움 없이 안두인을 뜯어보듯 노려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안두인은 한창 굶던 고기 꼬치를 꺼내 한 토막 잘라냈다.

“받아라, 여우야.” 그는 고기 토막을 여우에게 던져주었다. 여우는 당혹감에 혼비백산하며 도망치려는 듯, 이내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달은 눈치였다. 녀석은 고기를 꿀떡 삼키고는 획 달아나 버렸다.

다음 날 밤. 여우는 정식으로 인사라도 하겠다는 듯, 앞발을 모으고 꼬리를 만 채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계속 먹이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안두인이 말했다. 여우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귀담아듣고 있었다. 안두인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낮설게 들렸다. 로드릭에게도 딱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외에는 침묵을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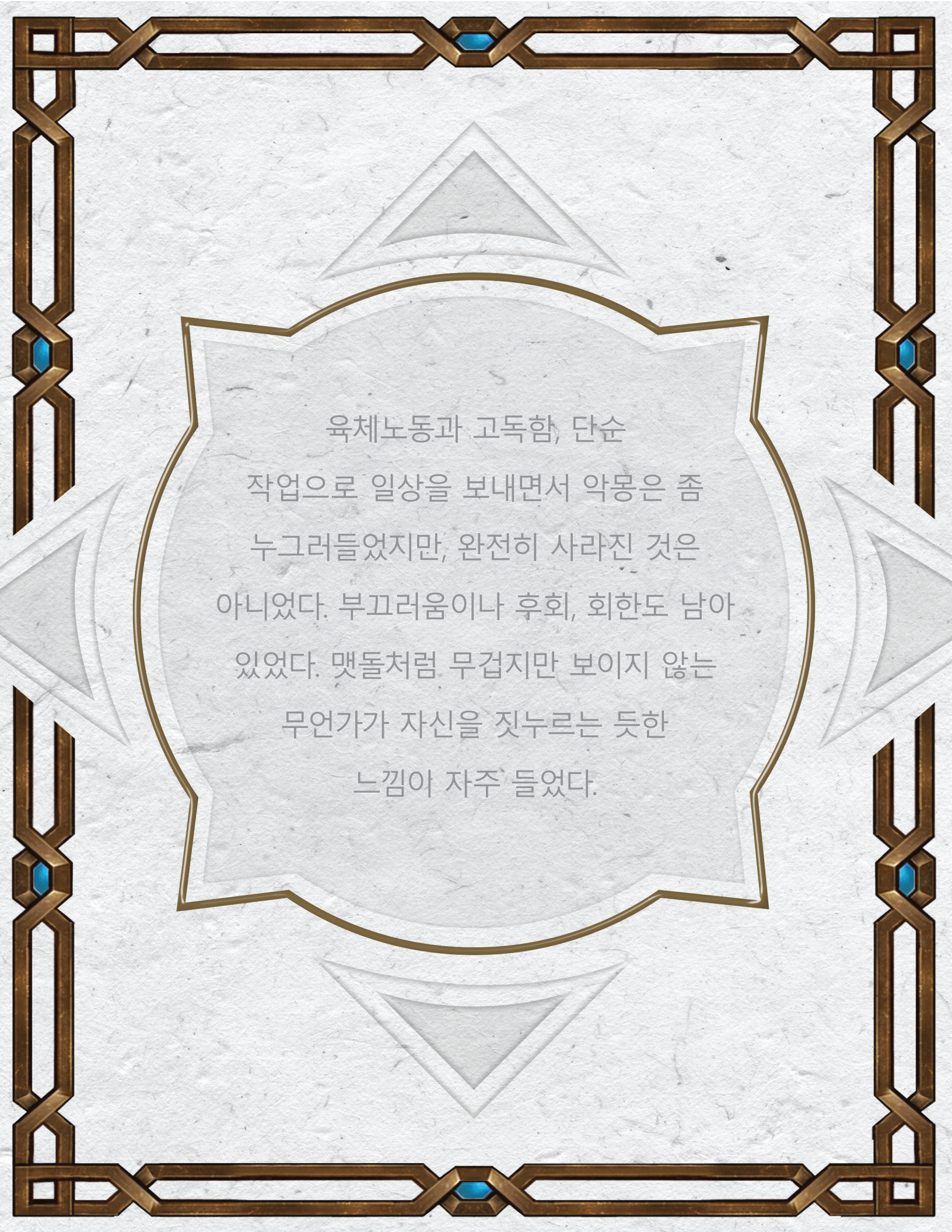
여우가 분홍색 혀바닥을 내밀어 얼룩덜룩한 검은 주둥이를 핥았다.

‘*애한테 계속 먹이를 주면 안 되는데.*’ 안두인은 생각만 그렇게 하고는 먹을 걸 주었다. 내가 왜 그랬나, 의문이 들었다.

육체노동과 고독함, 단순 작업으로 일상을 보내면서 악몽은 좀 누그러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부끄러움이나 후회, 회한도 남아 있었다. 멧돌처럼 무겁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자주 들었다.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버텨나가는 게 최선이었다. 한 일이 끝나면 다른 일로.

바쁘게 지내면 될 터였다.

안두인은 피로에 지쳐 꿈조차 꾸지 못하는 밤을 손꼽아 기다렸다. 꿈의 내용은 다양했지만, 화두는 늘 같았다. 폭력이었다. *안두인의 폭력* 말이다. 잔학무도한 만행을



육체노동과 고독함, 단순
작업으로 일상을 보내면서 악몽은 좀
누그러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부끄러움이나 후회, 회한도 남아
있었다. 멧돌처럼 무겁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자주 들었다.

저지르던 때와 마찬가지로, 꿈에서도 안두인은 무기력했다. 간혹 꿈이 회상의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안두인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 갇혀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 섬뜩한 꿈은 안두인을 피폐하게, 죄책감에 찌들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더 심했다.



쿵.

안두인이 몸에 밴 대로 움직이자, 도끼가 나무 깊숙이 파고들어 깔끔하게 쪼개버렸다. 내려치고. 다시 자세를 취하고. 내려치고. 다시 자세를 취하고. 새 통나무를 갖다 놓고.

쿵.

내려치고.

작은 체구, 부서질 듯 비단결 같은 날개. 공포에 질려 휘둥그레진 눈—

다시 자세를 취하고.

쿵.

그 검. 아버지의 손에 들린 검과 너무나 비슷했지만, 뒤틀리고 더럽혀져 있었다.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광채가 아닌 붉은 빛을 발산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울 정도로 붉었다. 톱니 모양의 칼날이 그대로 파고들었고, 상대의 크게 뜬 눈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어지는 비명. 음악과도 같았고, 끔찍했다. 비명은—

안두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목이 답답해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였다. 발치의 통나무는 단순히 쪼개진 정도를 넘어 작은 불쏘시개 조각이 되어 있었다. 손은 여전히 도끼자루를 쥐고 있었다. 손이 희게 변할 만큼 세게 쥐고 있던 탓에 옥신거렸다. 안두인은 화상이라도 입은 듯 도끼를 휘 내던졌다. 안두인이 보지도 않고 내던진 도끼는 다행히 흙바닥에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다. 언제 통제력을 잃을지 몰랐다.

약점을 감지한 포식자처럼 어떤 상념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빛을 불렀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 어떡하지?* 어떤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성스러운 빛으로 치유된 뼈의 통증도 사라졌고, 인도를 바라는 희망도 사라졌다.

간수, 파편 속의 영혼, 나. 그 끔찍한 전율을 느낀 건 우리 중 누구였을까?
내가 생명을 빼앗는 데서 쾌락을 느끼는 거라면?

안두인의 손가락이 흠을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갔다. 그는 천천히 심호흡을 내쉬었다. 다행히 깨어 있는 악몽은 악몽보다 드물게 찾아오는 증상이었다. 밤 시간대에는 안두인이 누군가를 해칠 가능성이 작았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건물이나 가축에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으니. 오늘 로드릭이 오지 않기도 했고, 안두인이 조용히 현기증에 빠져들던 그 순간에 로드릭이 나타났더라면?

안두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물주머니를 쪽 들이켜고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도로를 힐끔 내다본 그는 인상을 구겼다. 기다렸다는 듯 로드릭이 물자를 갖고 다가오고 있었다. 2주에 한 번 있는 방문이었다.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하늘은 이미 라벤더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안두인은 손과 얼굴을 씻었다. 너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넘기고 싶었다.

“평소보다 늦으셨군요.” 로드릭이 막 수레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한 참이었다. “저녁 식사에 늦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은 됐네.” 로드릭이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수레에서 내렸다. “자네 배고프지 않나? 젊은 친구,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베라 펠든의 봄채소 스투와 열매 파이 맛을 보여주지.”

“아뇨,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굶이—”

로드릭은 절뚝거리며 안두인에게 다가갔다. “이거 다 만든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았네. 내가 집으로 가서 베라에게 그 친구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하던데, 이런 소리를 지껄이길 바라는 건 아닐 테지?”

물론,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다. 안두인이 비품을 정리할 동안 로드릭은 작은 오두막에 들어가 불을 피웠다.

“괜찮습니다.” 안두인이 말했다. 지금은 좁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밖에서 먹죠.”

잠시 멈칫한 로드릭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화덕으로 향했다. 안두인이 방앗간에서 나오자 로드릭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덧을 놓는 게 좋을 텐데.”

“괜찮습니다.” “괜찮은 녀석이더군요.” 여우는 증명이라도 하듯 킁킁거리며 안두인에게 다가왔다. 아직 쓰다듬는 걸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먹이를 주기 시작한 이후로는

낮에도 안두인을 졸졸 따라다녔다. “방앗간에 떠도는 쥐만 잡아먹고, 닭은 건드리지 않더군요.”

“아직은 그런 거겠지.” 로드릭이 웅얼거렸다. “이름은 붙여줬나?”

“아니요.....”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 애정과 유대를 시사한다. 안두인은 여우에게 이름을 줄 생각이 없었다.

중년의 방앗간 주인은 화톳불 위로 작은 솥을 걸고는 빵과 치즈의 포장을 풀었다. 그리고 안두인이 예상한 대로 대화의 포문을 열었다. 첫 주제는 빵에 관한 얘기였다. 약초를 넣어 맛이 다르다고 했다. 추수절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베라는 한창 실험 정신을 불태우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로드릭과의 잡담. 그러나 안두인은 뭐라 말하기 힘든.....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로드릭이 억지로 친근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식사하는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안두인이 한 손가락 더 뜯 때쯤, 로드릭이 순수하면서도 괴로운 질문을 던졌다.

“자네..... 전쟁에 참전했나?”

안두인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마른침을 삼켰다. 물론, 전쟁에 참전했다고 말고. 여러 의미로 그렇다고 답할 수 있었다. 안두인은 차마 말은 못 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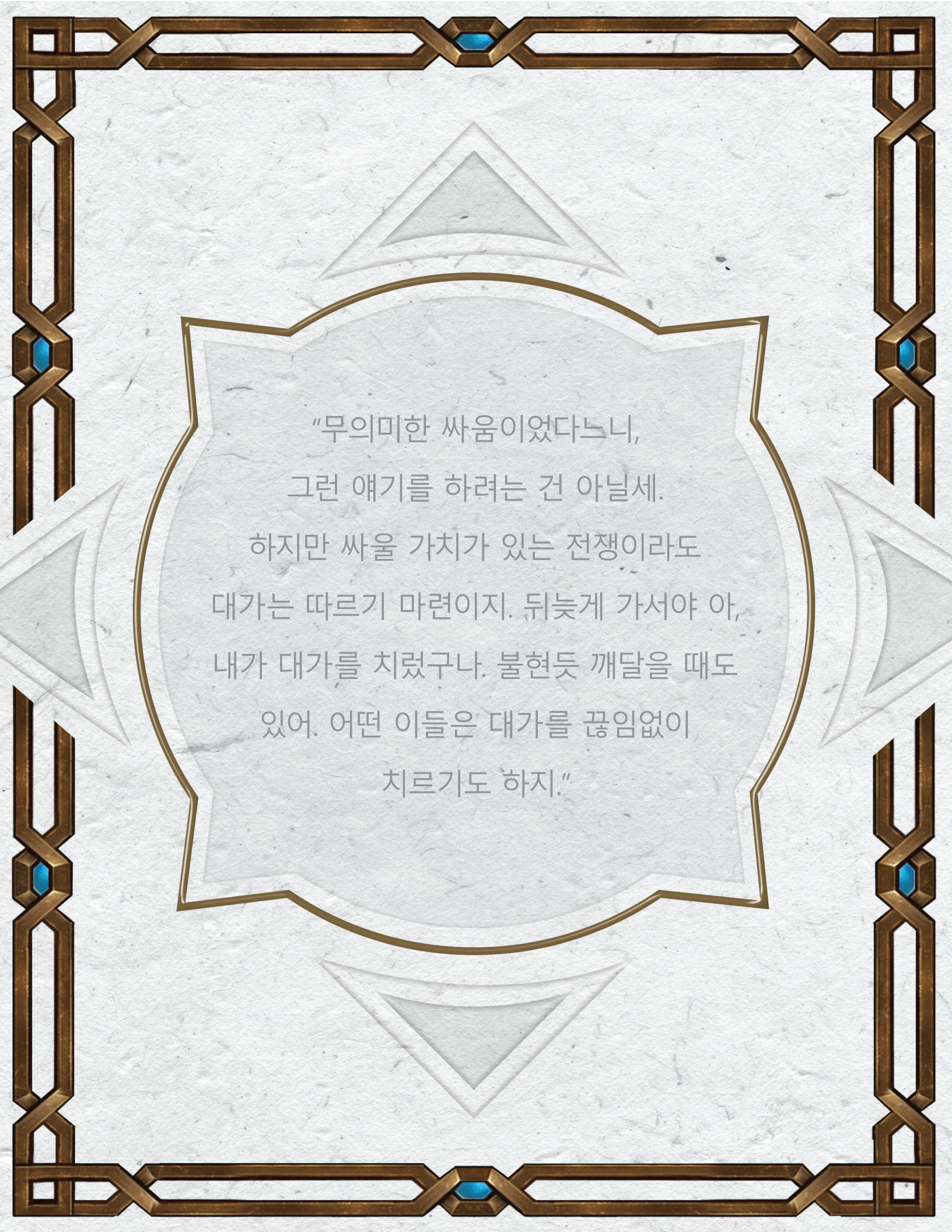
“무의미한 싸움이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닐세. 하지만 싸울 가치가 있는 전쟁이라도 대가는 따르기 마련이지. 뒤늦게 가서야 아, 내가 대가를 치렀구나. 불현듯 깨달을 때도 있어. 어떤 이들은 대가를 끊임없이 치르기도 하지.”

안두인은 무릎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가 고팠는데, 이젠 음식이 뱃속을 가득 채워 무거운 지경이었다. 식은땀이 흐른다.

“생각해 보면 괴로워할 것도 아닌 일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기도 해. 이를테면 저 밖에 난 불처럼 말이야. 지금 이렇게 앓는 것조차 힘들었던 때도 있었네. 지금도 내키진 않지만, 좀 나아졌지.” 로드릭은 숨을 들이쉬더니, 잠시 참은 후에 천천히 내뿔었다.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한다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멋대로 움직이는 몸. 안두인은 심호흡을 했다.

“모닥불을 피웠다가 습격을 당했네. 눈 깜짝할 사이였어. 친구 세 명이 화살에 맞았지. 어둠 속에서 싸웠는데, 트롤은 덩치가 훨씬 크더군. 누구든 맞았다가는—” 로드릭이



“무의미한 싸움이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닐세.
하지만 싸울 가치가 있는 전쟁이라도
대가는 따르기 마련이지. 뒤늦게 가서야 아,
내가 대가를 치렀구나. 불현듯 깨달을 때도
있어. 어떤 이들은 대가를 끊임없이
치르기도 하지.”

말을 멈췄다. 불빛 속에서도 로드릭의 안색은 창백해 보였다. 그는 떨고 있었다. “우리는 도망쳤네. 그래야만 했어. 직감적으로 느꼈거든. 근데 다른 이들을 두고 와서도 안 됐어. 가끔..... 그 꿈을 꾀다네.”

시리도록 푸르게 빛나는 사자한. 자비로운 망각을 빼앗긴 안두인은 명백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의 손으로 칼자루를 쥐고, 자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인장을 뽑아내던 때를—

“베라에게 털어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

안두인이 벌떡 일어났다. 무릎에 올려뒀던 그릇이 떨어졌다. “그만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늦었습니다.” 안두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걸음은 안두인을 쫓아다니는 여우처럼 달리기로 변했다. 안두인은 도망쳤다. 로드릭의 고통과 진실로부터, 자기 자신의 고통과 진실로부터.



“내일부터 추수절일세.” 2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안두인이 수레에 밀가루 자루 여러 개를 싣고 나서야 로드릭이 꺼낸 말이었다. “베라가 특별한 후식을 만들겠다나 봐. 기름에서 튀긴 다음에, 뜨거운 상태로 꺼내 설탕으로 뒤덮는 거지.”

안두인도 잘 아는 간식이었다. 갑자기 기름과 설탕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바리안. 왕, 아버지. 바리안의 크고 억센 손이 달콤한 가루로 뒤덮여 있었다. “여기서는 손가락에 묻은 것도 훑아먹어도 괜찮단다, 아들이. 예법이란 건 축제가 아니라 공식 만찬장에서나 찾는 거니까.” 혀를 자극하는 맛, 왁자지껄한 웃음과 음악이 섞인 소리—

로드릭은 안두인이 움찔하는 모습을 눈에 담았다. “무조건 오라는 소리는 아닐세. 오면 좋겠단 얘기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두인이 힘겹게 답했다. 무슨 의미인지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마차는 출발할 준비를 마쳤지만, 마부석에 앉은 로드릭은 고삐를 당겨 말에게 출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안두인은 긴장했다.

“제렉..... 저번 대화 말일세.....”

부끄러움이 안두인을 덮쳤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아니야. *내가* 미안하네. 내 실수였어.”

당황한 안두인은 침묵을 지켰다. 로드릭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제렉 자네를 보면 날 보는 것 같네. 자네가 화를 내거나, 숨을 몰아쉬거나, 얼른 날 내보내고 싶어 할 때를 보면 그래. 떨면서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내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다든지. 나도 눈치는 있네. 나는 전쟁이 됐든, 다른 무슨 일이 됐든 그런 걸 이유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아.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내 이야기를 한 걸세. 일부긴 하지만 말이야. 그러다 본의 아니게 자네로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자극한 것 같아.”

안두인. 외교가. 평화의 중재자. 한때 고아한 언변으로 설전을 주고받거나 약속을 논하던 그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로드릭이 포갠 양피지 한 장을 내밀었다. “내 경험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적은 걸세. 내 깨달음이 자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를까 싶어서. 굳이 안 읽어도 돼. 아무런 말도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보게 된다면..... 내가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게나.”

안두인은 마른침을 삼켰다. 처음에 여우가 그랬던 것처럼, 안두인은 경계심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양피지를 건네받으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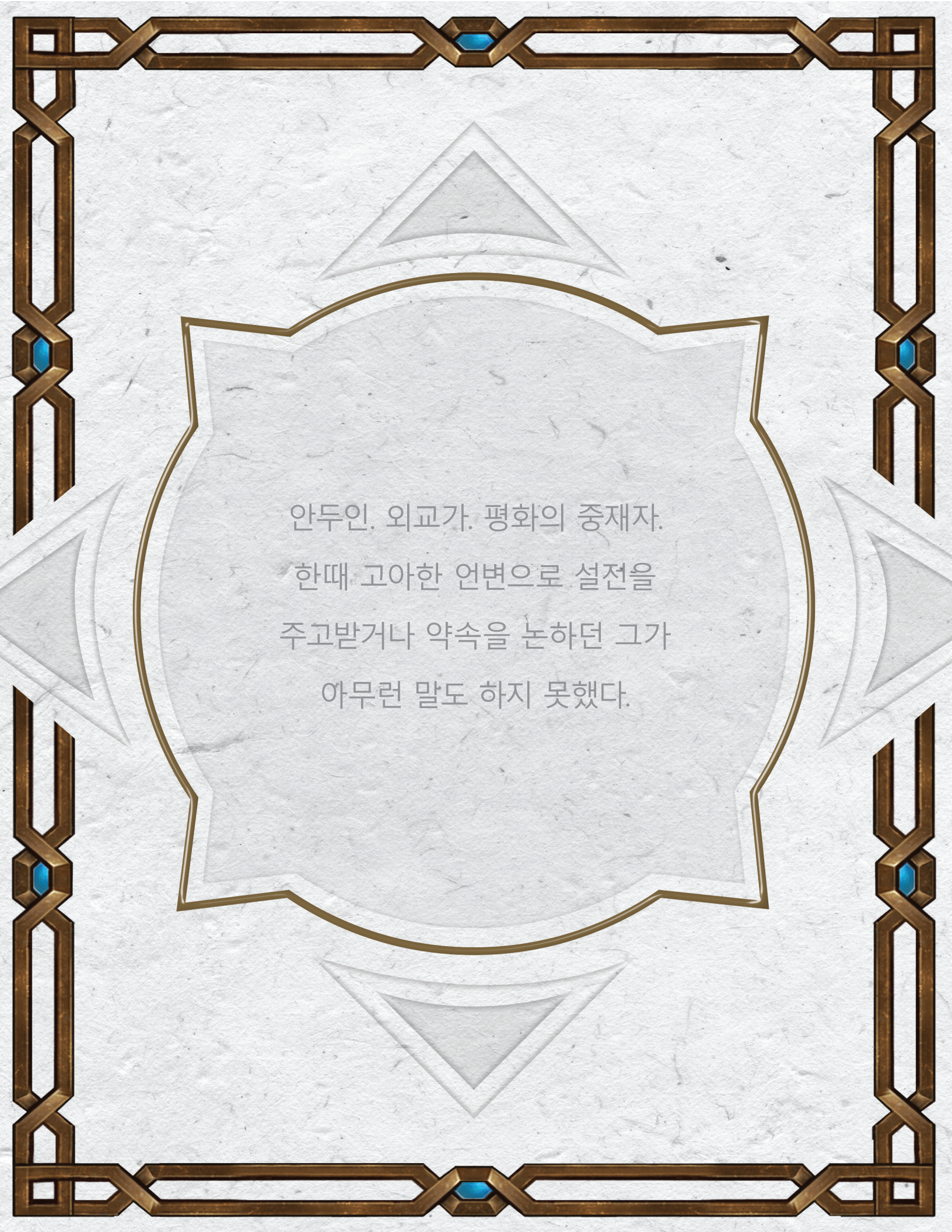
로드릭은 눈에 띄게 안도하며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베라에게 빵을 좀 남겨두라고 일러두겠네.” 그가 혀를 꼰꼰 차며 말했다. 말이 갈기를 훑날리며 길을 따라 내달리기 시작했다.

안두인은 편지를 한 번 보고는, 읽지 않고 주머니에 찔러넣은 뒤 곡물 자루를 들어 올렸다.



다음날은 가을 추수절을 즐기기에 더없이 완벽한 날씨였다. 하늘은 쾌청했고, 태양의 온기가 겨울의 도래를 알리는 미미한 냉기를 몰아냈다. 안두인은 톱니바퀴를 고치느라 아침 내내 방앗간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일을 끝내고서야 밖으로 나왔다.

연한 연기가 하늘을 물들이는 가운데, 검은 연기가 저 멀리 피어오르고 있었다. 축제. 로드릭. 돕고 싶다는 깊은 본능이 안두인의 다음 행동을 이끌었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기도 전에 그는 놀란 기색이 역력한 마차 말에 올라타 최고 속도로



안두인. 외교가. 평화의 중재자.
한때 고아한 언변으로 설전을
주고받거나 약속을 논하던 그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내달렸다.

그의 친구, 친구의 가족을 향하여. 안두인은 혼돈의 현장을 예상하고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그리고 보니 로드릭이 뜨거운 기름 얘기를 했었다. 임시로 만든 화덕에서 불길에 퍼졌다든가, 그런 사고가 난 거겠지. 안두인이 도울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럴 의지도 있었다.*

심각한 일은 아니니까.

그야말로 인세의 불지옥이었다. 연기 틈새로 이미 불길에 삼켜진 축제 구조물들이 보였다. 몇몇은 골격만 남아 언제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깃발까지 불타오르고 있었다. 안두인은 최면이라도 걸린 듯, 굳어버린 채 멍뚱뚱 지켜봤다. 불붙은 스톨송 가문 깃발이 뒤틀리며 검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바닥에 놓인 형체들이 눈에 들어왔다. 시신이었다. 화덕에 너무 오랫동안 걸려 있어 새까맣게 타버린 고깃덩어리도 하나 보였다. 왼쪽에서 비명이 들리더니, 검은 연기 속에서 담요를 두른 두 형체가 나타났다.

불타오르는 세계수. 피난민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차원문. 그 와중에 안전하게 스톨윈드에서 잠자코 지켜보기만 하던—

겁에 질린 말이 몸을 확 들어 올렸고, 당황한 안두인은 그대로 나가떨어졌다. 무언가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세상이 순간 하얗게 물들더니, 별이 터지듯 섬광으로 화했다. 안두인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세상이 핑핑 돌고 있었다. 조금 전에 나타난 두 형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세 번째 형체가 연기를 휘감은 채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안두인은 여인의 뒤로 누군가를 본 것 같았다. 언뜻 본 거라 빠르게 사라졌다.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걸지도. 여인은 필사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

여왕의 아이는 마지막 생존자인 여사제에게로—

여인은 털썩 주저앉았다. 아기가 기침을 토하며 울었다. 큰 외침이 들렸다. 웃음소리도. 비명도.

머릿속에 벼락이라도 떨어진 듯 고통스러웠다. 안두인은 손으로 양쪽 귀를 틀어막았다. 핏물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떻게든 집중력을 찾으려고 부산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헛수고였다. 기침 때문에 몸을 쉬시는 통증은 심해졌고, 비릿한 피냄새와 학살 현장의 불협화음은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다.

간신히 별이 흐릿해지자, 비로소 안두인은 볼 수 있었다. 탐욕스러운 불길의 영역 바로

바깥에 식량과 물자를 가득 실은 마차들이 세워져 있었다. 그때 마부들이 겁에 질려 있던 말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었고, 마차들은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다. 몇몇 약탈자들은 남았다. 연기 사이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유희를 더 즐기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로드릭.

안두인은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힘을 쥐어 짜내 팔다리를 뜻대로 움직이는 데 쏟았다. 정신은 무의식을 위협하여 자리를 딛고 일어나게 했다. 안두인은 바닥에 얼굴을 바짝 붙인 채, 숨을 그러모으며 기었다. 내면의 모든 것이 소리쳤다. *‘도망쳐! 도망치라고!’*

그러나 안두인은 이를 악물고 비명을 억눌렀다. 의지의 힘으로 나아갔다.

놀랍게도 화마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밀친 것처럼 비틀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어떻게 목숨을 부지한 거지? 검댕과 연기, 눈물이 눈을 후벼댔다. 안두인은 차라리 기뻐다. 이 고통이, 보이지 않는 시야가 기꺼웠다. 저 화염이 사람들을 어떤 끔찍한 몰골로 만들어 놓았을지 보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아기는 여전히 기침을 토하며 울고 있었다. 누군가가 달려와 아기를 끌어안고 도망쳤다. 또 다른 인물이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헤치고 나왔다. 화상을 입긴 했지만, 다른 이들보단 상태가 나았다. 어딘가 이상했다. *저 남자,*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는 모양새가.....

“로드릭!” 안두인은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거친 쇠소리만 터져 나왔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나도 도울 수 있어. 나도—

로드릭이 풀썩 무너져 내렸다.

안두인은 자기가 어떻게 쓰러진 친구에게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안두인은 방앗간 주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검게 타버린 몸. 검댕투성이 얼굴의 푸른 눈. 출혈을 막느라 손가락 사이로 솟구치는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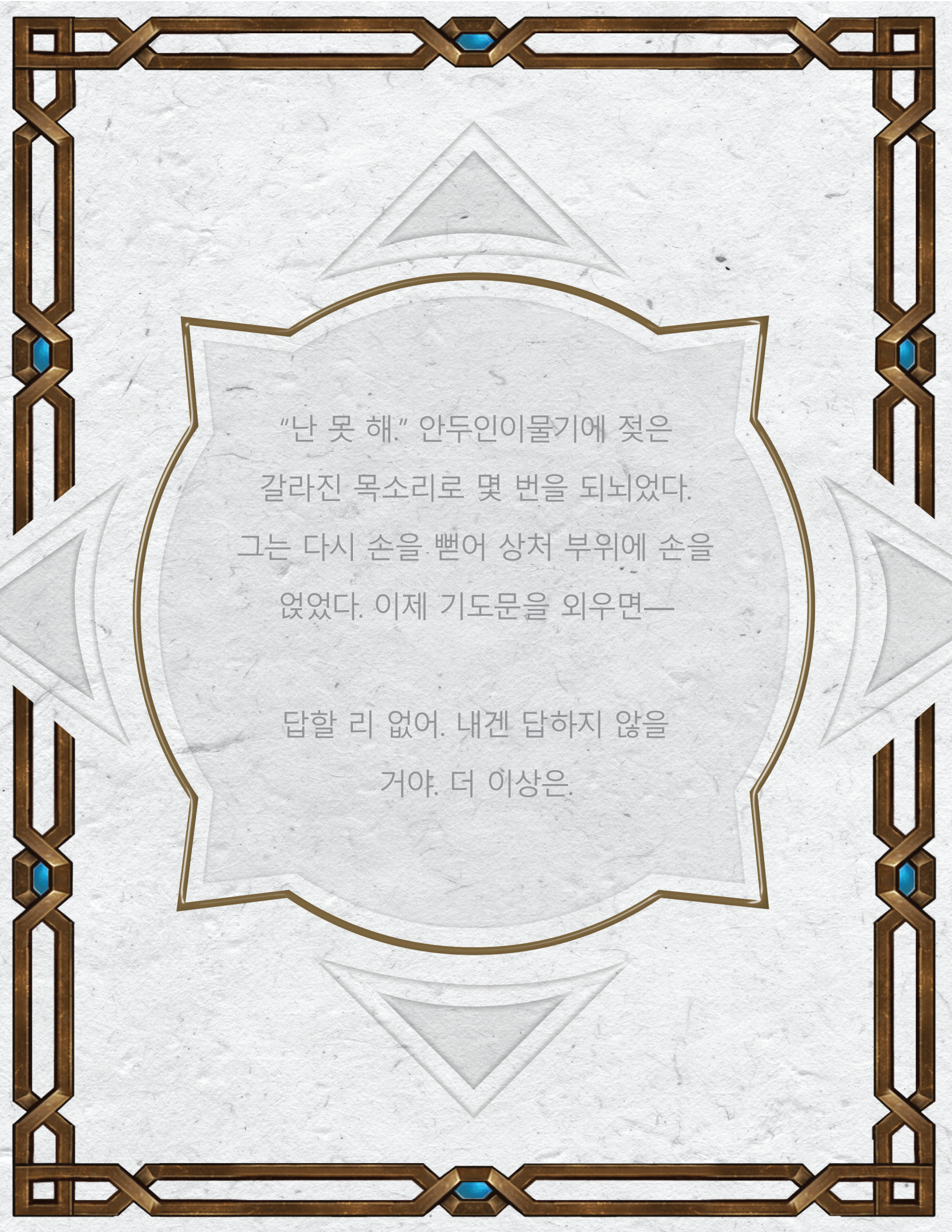
안두인은 숨을 몰아쉬며 손을 뒤로 뺐다.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로드릭을 도울 수 없었다. 지금은.

안두인, 뭐라도 해봐.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난 못 해.” 안두인이 물기에 젖은 갈라진 목소리로 몇 번을 되뇌었다. 그는 다시 손을 뺐어 상처 부위에 손을 얹었다. 이제 기도문을 외우면—

답할 리 없어. 내겐 답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안두인은 또다시 쓸모없는 손을 뒤로 확 빼냈다. 주먹을 말아쥐고는 분노와 무력감,



“난 못 해.” 안두인이물기에 젖은
갈라진 목소리로 몇 번을 되뇌었다.
그는 다시 손을 뺀어 상처 부위에 손을
얹었다. 이제 기도문을 외우면—

답할 리 없어. 내겐 답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혈오를 잔뜩 담아 스스로의 허벅지를 내리쳤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귓속말. “괜찮아.....”

안두인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로드릭의 손이 경련을 일으키자 안두인이 잡아주었다. 그 손길에 로드릭이 울부짖자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임종을 향해 다가가는 중년인이 맞잡은 손에 힘을 넣었다. “가족이..... 마을에.....” 격한 기침에 입에서 피와 잿가루가 섞여 터져 나왔다. 로드릭의 몸을 찢어발길 기세였다.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냈지만, 그럼에도 로드릭은 말을 꺼내기 힘들었다. 안두인은 로드릭을 진정시켰다. 그나마 마지막에 안식을 선사해 줄 수 있었다.

“가족분들은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로드릭은 안두인의 말을 들었다. 고통에 굳었던 몸이 풀어진 게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벤 펠든은 아버지의 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벤은 아버지의 낡은 전쟁용 권총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을 겨누고 있었다.

안두인은 두 손을 들었다.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짐작이 갔다. 옷은 재가 묻어 지저분해진 데다 피를 흠뻑 적시고 있지 않은가. 로드릭의 피였다. 안두인은 담요로 감싼 로드릭의 시신을 부드럽게 내려놓은 뒤, 펠든 가문의 문을 두드렸다.

“전 제렉이라고 합니다. 물방앗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벤은 이름을 알아듣고 권총을 내렸다. 벤의 몸에도 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팔 한쪽에는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셔츠는 그슬린 상태였다. 로드릭은 자신이 남고 가족을 먼저 탈출시킨 모양이었다.

“여보?”

한 여인이 황급히 안두인을 지나쳐 달려갔다.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베라였다*. 베라의 검은 머리는 점차 회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다만 놀라울 정도로 주름이 없었다..... 하지만, 베라의 시선이 남편의 시선에 닿으면서 얼굴이 일그러졌다. 상황을 자각한 베라의 얼굴에 고통이 퍼져 나갔다. 낮빛이 어두워진 그녀는 주저앉아 남편의 시신에 손을 올렸고, 고개를 푹 떨어뜨렸다.

잠깐이지만 안두인은 마음의 벽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 벽이 무너지면 축제 현장의 불타는 구조물처럼 내면의 무언가가 붕괴해 고칠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거란 걸 알았다.

“고마워요, 청년.” 베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려 깊었다. “남편을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아버지는 왜 혼자 가셨을까요?” 벤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랐던 거겠지.”

“가족 모두 무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굳이*—” 얼굴을 일그러뜨린 벤이 획 돌아섰다.

로드릭. 병사. 모닥불을 피웠다가 습격당한 자. 이번에 병사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

다급하게 뛰어오는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작은 여자아이가 현관에 나타났다. 이젠 축 늘어진 평온초 꽃잎으로 머리를 땅은 아이였다.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이의 얼굴을 뒤덮은 검댕을 지우며 선을 그었다.

“아빠?”

“아아, 신다. 여보. 안 돼.....”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안두인 내면의 벽이 떨렸다.



로드릭과 베라는 지금의 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던 시절, 먼저 가는 사람을 절벽 근처 뒷자리에 묻어주기로 서로 약속했다고 한다.

안두인은 직접 무덤을 팠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았거니와, 스스로 원하는 바였다.

땅을 파는 동안 자신의 소지품 생각이 났다. 지금 파고 있는 무덤보다 더 깊은 곳에 묻은 물건들을. 성스러운 빛이 로드릭을 구원했을까? 안두인은 영영 모를 것이다. 물어보기엔 너무 두렵고 이 공포를 안은 채 살아야 하리라. 유가족을 돕기 위해 웬만한 대소사는 가리지 않고 나섰지만, 단 한 하나. 장례식만큼은 도저히 참석할 수

없었다. 성스러운 빛을 휘두르는 자 근처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금은. 어쩌면 영원히 못 갈지도.

그날 안두인은 걸었다. 여우는 작은 그림자처럼 그를 뒤따랐다. 그는 모든 사람이 떠난 해 질 녘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놀랍게도 오두막집 문 앞에 상자가 놓여 있었다. 작은 양피지가 같이 놓여 있었다.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제렉. 고마워요.' 상자는 빵과 치즈, 채소, 밀랍 먹인 천으로 감싼 고기, 심지어 여우에게 줄 자투리 고기로 가득했다.

안두인은 작은 고기 토막 하나를 집어 들었다. "자, 받아라. 여우야." 여우는 그가 주는 고기를 받아먹었다.

불현듯 이 순간까지 잊고 있던 로드릭의 편지가 떠올랐다. 안두인은 편지를 꺼내 잠시 바라보았다.

제렉에게.

자네나 나나 전쟁을 경험했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았고 말이야. 감정을 느끼는 건 엄연히 자네의 권리일세. 분노, 슬픔, 두려움..... 나 역시 그 모든 것을, 나아가 다른 감정들도 느꼈다네.

난 자네를 자네 생각보다 더 잘 알아. 방앗간을 잘 운영하려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도 알고 있네. 여우를 대하는 모습에서 인내심과 훌륭한 성품을 보았지. 자네처럼 고초를 겪은 후에도 시간을 내어 동물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는 많지 않아. 본인 생각이 어떻든 마음은 선량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지.

나는 이 마음이 베라와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네. 자네와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군. 설령 그러지 못해도, 언젠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소망하겠네. 꿀은 술에 그냥 뚜껑만 덮어두면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어. 심지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칠지도 모르지.

이 말을 끝으로 줄이겠네. 우린 종종 끔찍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네. 그리고 그 끔찍한 일들이 우릴 찾아올 때도 있지. 어느 상황이든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고 도망칠 수도 없는 걸세.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의 가치를 믿지 못한다면 믿어줄 사람을 찾아보게나. 그 사람이라면 자네 스스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줄 테니까.

어둠이 자네를 사로잡아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겠지. 하지만 잊지 말게. 그 어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넌 거짓말쟁이라고 일갈할 기회는, 선택할 기회는 매일 찾아온다네. 그런 선택이 힘든 날도 있겠지. 근데 또 할 수 있는 날도 올 거야.

베라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어 보게.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실천하게나. 바라건대 언젠가는 자네와 저녁 만찬을 즐기는 날이 오면 좋겠어.

— R 보냄



벤은 아버지의 곡물을 방앗간으로 운반하는 일을 이으려고 했지만, 안두인이 거부했다. 대신 직접 마을을 찾아와 물자를 구했다. 그것이 그가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다. 로드릭을 위해서도.

첫 방문에서 베라는 꼭 제빵점에 들러 차와 페이스트리를 먹고 가라고 신신당부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이 일대가 풍족하다는 소문이 몇몇 약탈자들 귀에 들어간 것 같다고 한다.

“배를 타고 다니는 쥐새끼들이에요. 저 심해에 있는 괴물도 수면 위를 떠도는 괴물보단 잔혹하진 못할 거예요. 남편은 우릴 마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놓고 다른 주민들을 구해야 한다며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베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정말 그이를 떠나보낼 운명이었다면, 그럼..... 그전에—”

“예.” 안두인이 조용히 답했다. “부군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안두인은 베라의 인상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걸 보고 그녀가 약간의 평화를 찾았음을 알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일과가 형성되었다. 안두인은 여전히 물방앗간에서 일했지만, 해가 누엣누엣 저물 무렵이면 종종 친구의 무덤 옆에 앉아있곤 했다. 여우도 그와 동행해 기대어 앉았다. 가끔 안두인은 로드릭이 곁에서 듣는 것처럼 말하곤 했다. 조용한 고해. 영영 로드릭의 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 어떨 때는 화를 토로하기도 했다.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심호흡하는 법을 되새길 때도 있었고.

가끔 마을을 방문할 때면 벤을 도와 서류 작업을 처리하거나, 마차에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도왔다. 이따금 베라가 반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사실 베라가 빵 굽는 법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베라와 벤은 로드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안두인은 처음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두인 자신도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같이 사소한 이야기였다. 적절한 순간이 던진 재치 있는 농담, 미운 네 살 시절을 참아준 인내심, 영성한 할로윈 축제 의상을 만들었던 일. 오직 신다만 아버지에 관해 말하기를 꺼리는 것 같았다. 베라는 차라리 신다가 어릴 때 일이 그렇게 되어서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털어놓았다. “추억이 적을수록 그리움도 덜한 법이니까요.” 베라가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과거 안두인은 스톨윈드 보육원을 자주 찾곤 했다. 그는 고향이 불타버려 피난 온 난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슬픔과 죄책감이란 감정이 얼마나 이상하게 작용하는지 잘 아는 그로서는 베라의 주장이 진담일지 좀처럼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안두인도 베라의 말이 맞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가는 희망은 어느 고요했던 아침에 산산이 조각나 버리고 말았다. 돌바닥에 내던진 찻주전자와 함께.

“신다!” 베라가 소리쳤다. “그건 네 아버지가 준 결혼 선물이야!”

“저도 *알아요!*” 신다도 비명으로 응수했다. “어차피 신경 쓸 당사자도 없는데, 왜 엄마가 난리예요? *아빠는 우릴* 신경 쓰지도 않았다고요!” 신다는 찻주전자와 짝을 이루는 잔 하나를 집더니, 그것도 바닥에 던지고는 어머니의 손을 피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신다!” 결국 베라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일단 두시죠.” 안두인의 말에 베라가 고개를 핵 돌려 쏘아보았다. “신다가 심한 말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감정을 느끼게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베라가 한결 누그러졌다.

베라도 놀랐겠지만, 내심 스스로도 놀라워하며 안두인을 말을 이어나갔다. “전 갓난아이일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목이 빠근했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계속 말하라고 채근했다.

“제가 신다하고 비슷한 나이였을 때,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떨어진 적 있습니다. 결국 돌아오시긴 했죠. 그 뒤로 형편은 나아졌지만..... 어릴 때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따님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대화를 시도할 것이고요. 신다도 알 겁니다. 당신이 자기를—” 이어서 할 말은 ‘사랑한다는 걸’이었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베라의 달콤한 미소가 돌아왔다. “맞아요. 감정이 벅차오를 땐 좀처럼 숨쉬기가 어렵죠. 당신은 착한 사람이예요, 제렉. 남편이 사람을 제대로 보긴 했네요. 언젠든 환영할게요.”

안두인은 더듬거리며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떴다.

다음에 방문할 때는 여우를 데리고 왔다. 겁이 많은 녀석이었지만, 꺾어낼 방법이 다 있었다. 안두인은 탁자에 놓인 그릇에서 열매를 떼어냈다. “자, 여우야.” 여우는 곧바로 안두인에게 반응했다. 열매가 여우의 입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저도 열매 좋아해요.” 신다가 즐거워하며 말했다. 소녀는 여우와 안두인을 흉내 내듯 열매를 입에 욱여넣고는, 한 아름 떼어내 여우에게 건네주었다.

“오늘 열매 파이는 못 먹겠네요. 그래도 딸아이 웃는 걸 보니 손해란 생각은 안 들어요.” 베라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했다. “잠깐 앉아봐요, 제렉.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꿀하고 꽃을 넣었어요.”

안두인의 큼직한 손에 올려놓으니 롤빵이 작게만 보였다. 환상적인 향기가 났다. 안두인은 정말 오랜만에 풍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쾌감을 느꼈다. 단 두 입에 전부 먹어 치울 만큼. 베라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그녀는 안두인에게 롤빵을 하나 더 건네주었다.

“네가 마음에 들었나 봐.” 안두인이 신다에게 말했다. 여우는 문질러 달라는 듯 소녀에게 하얀 배를 들이밀고 있었다. 신다가 배를 만져주자, 여우는 기쁨에 겨워 몸을

배배 꼬며 킁킁거리는 울음소리를 냈다.

“웃을 줄도 아네!” 신다가 여우와 같이 웃음꽃을 피웠다. 웃으며 안두인을 응시하던 신다의 미소에 살짝 슬픔이 드리웠다.

“아저씨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힘드셨겠다.”

깜짝 놀란 안두인은 베라를 바라보았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게 도움이 됐어요.”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요.” 신다가 말했다. 소녀는 여전히 여우를 쓰다듬고 있었다. “엄마가 그러는데 그리운 마음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견디기 쉬워진대요. 우린 서로가 있으니까요.” 신다의 슬픈 미소가 안두인에게 향했다. “안 그래요?”

안두인은 대답하려던 찰나, 신다가 말한 우리에게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 돼, 아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도 실망시키고 말 거야.



시간은 무상하게 흘러갔다. 안두인은 일에 몰두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악몽을 꾸는 빈도는 극히 드물어졌다. 불현듯 찾아와 영혼을 옥죄던 불안감도 사라졌다. 그리고 회상도, 너무나도 생생해 지옥 같았던 찰나의 기억들도 더 이상 몰려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예견하던 상황은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결국 그의 손에 죽게 되겠지. 그의 친구들도. 그를 믿고 구하려 한 사람들도. 결국 그는 실망만 안겨주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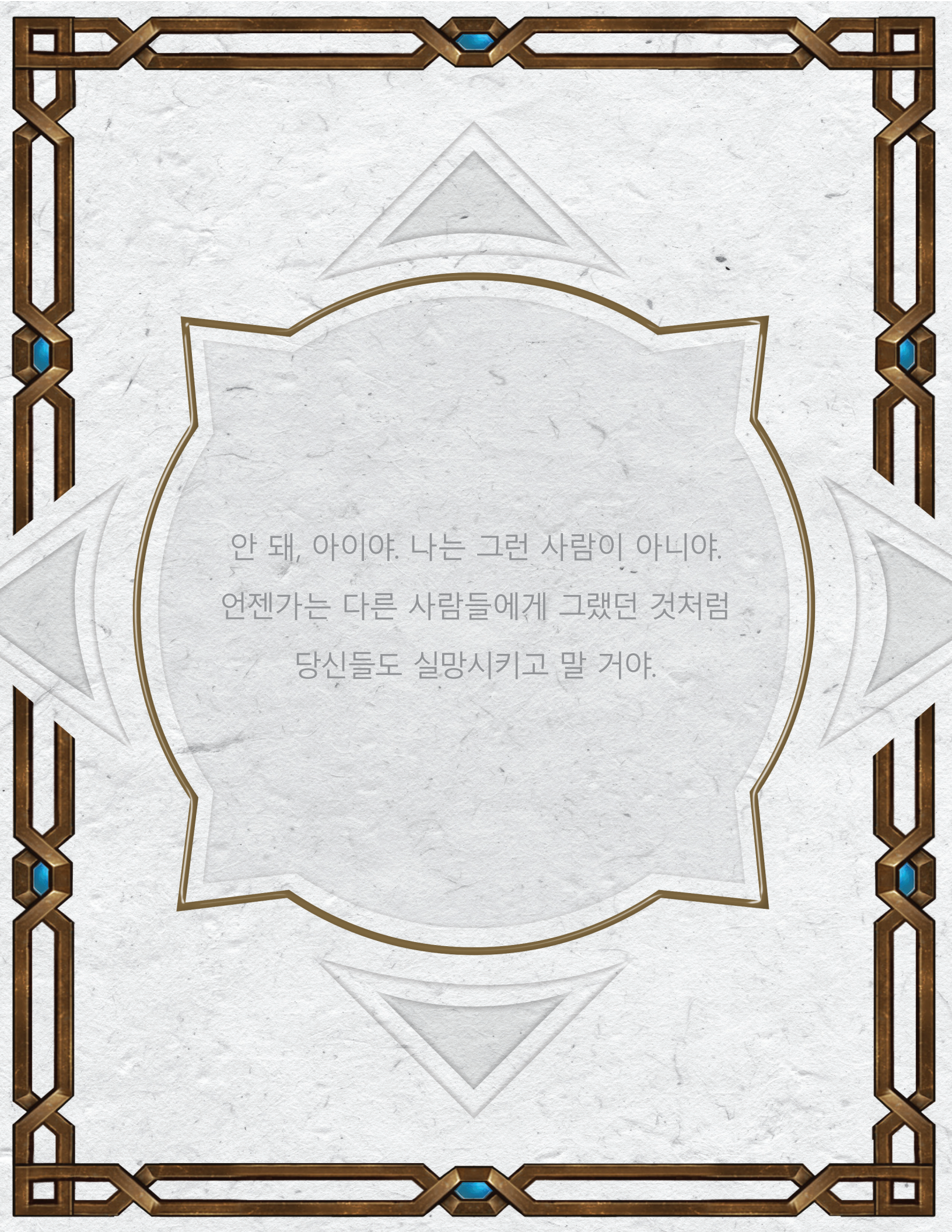
쏟아오르는 연기. 아이의 울음소리. 악에 받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

안두인은 번쩍 몸을 일으켜 세웠다. 울음소리는 사실 여우가 낸 소리였다. 녀석은 킁킁거리며 안두인에게 발짓을 해댔다. 여우의 귀가 납작하게 접혀 있었다.

무언가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안두인은 물리적으로 꿈을 떨쳐내듯 몸을 흔들고는 여우를 쓰다듬어 안심시켰다. 그는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남쪽으로 가느다란 회색 기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연기였다.



안 돼, 아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도 실망시키고 말 거야.

“안 돼.” 안두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리가 떨렸다.

또 사람들을 실망하게 할 순 없다. 두 번 다시는. 안두인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다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근육이 움찔거릴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황급히 마차를 모는 말에 올라탄 그는 소지품을 묻어둔 곳으로 달렸다. 설령 칼자루를 쥐는 게 두려워 꾸러미를 풀지 못한다고 해도. 자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검을 드는 행위에서 지나친 즐거움을 느끼면 어떡하지? 제어할 수 있다고, 도저히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안두인은 마을을 향해 달렸다. 베라와 벤, 어린 신대를 위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신을 이해해 주고 믿어준 남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로드릭은 안두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책임과 의무를 모조리 등쳐버린 사실을 모르면서도 그렇게 행했다.

축제 당시 안두인이 도착했을 땐 시꺼먼 연기가 자욱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은 모조리 무너진 뒤였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건물 몇 개만 불이 붙은 게 전부였다. 약탈자들이 습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게 분명했다. 불협화음은 여전했지만. 웃음소리가 들렸다. 비명이 들렸다. 폭력의 현장.

안두인은 이를 악물고 몰려오는 공포를 방패로 막듯 쳐냈다. 말에서 가볍게 내린 그는 말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다. 오른손을 힘껏 쥐었다. 곧이어 왼손에도 힘이 들어갔다. 안두인 레인 린은 죽음의 영역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살라메인.

살라메인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서로 다른 명검 두 자루에서 출발했으나,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 낸 영광스러운 무구였다. 안두인이 굳은 얼굴로 나섰다. 갑옷은 입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는 전설의 검이 들려 있었다. 안두인은 이 검을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지금 들어 올린 이 검에는 구원을 염원하는 소망이 담겨 있었다.

그때 시선을 돌린 한 해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해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공포에 질려 휘둥그레진 눈—

이 끔찍한 찰나에 안두인은 얼어붙었다.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었다.

해적이 서서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커틀라스를 들었다.

그 순간, 살라메인은 눈을 의심케 하는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내려와 해적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완벽한 균형 덕택에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도 휘두를 수 있었다. 이 검이 베지 못할 것은 없었으며 쓰러뜨리지 못할 적은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잔혹한 광경에 안두인은 숨을 쉬기 어려웠지만, 몸에 밴 기억은 배신하지 않았다. 안두인은 질풍처럼 휘몰아쳤다. 살라메인은 다시 한번 무고한 이들을 지키는 데 쓰이게 된 것이 기꺼웠는지 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 순간만큼 안두인은 살라메인과 하나가 되었다.

얼굴에는 따뜻하고 축축한 피가 튀었고, 눈을 찌르거나 입안으로 스며들기도 했다. 안두인은 입술을 흠치곤 공세를 이어나갔다. 해적이 하나둘 쓰러져 나갔다. 안두인은 어느 순간 세기를 관뒀고,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안두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춤사위를 추듯 움직였다. 그에게 느껴지는 감각은 팔의 힘과 검의 노래뿐이었다. 안두인이 몸을 던졌다. 자루에 닿을 정도로 살라메인을 깊숙이 꽂아 넣은 뒤, 뽑아내 적의 공격을 쳐내기를 반복했다.

적이 바닥을 나뒹굴든 말든 안두인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검을 들어 올리고, 내려치고— 그때 멍멍한 목소리가 혼란을 비집고 들려왔다. 한마디였다. 이 피로 물든 찰나 속에서, 지금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소리였다.

이름이었다. 그의 이름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이름.....

"제력! 제력!"

안두인이 괴성을 지르며 살라메인을 치켜들었다. 공격하려던 순간—

신다가 서 있었다. 충격에 입을 벌린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안두인을 두려워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이었다. 어리석었다. 신다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두인의 팔을 붙잡고는 뭐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래도 부드럽고 편안한 말이었다.

안두인.....

잔잔한 부름이 들려왔다. 다만 이 목소리는 눈앞의 소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목소리는 안두인이란 존재와 충돌하더니, 그의 상념을 고뇌와 총천연색 빛깔이 뒤엎힌 만화경으로 조각내었다. 이해는 가지만 생소한 노래였다. 노랫가락 하나하나가 안두인 전신의 신경과 공명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는, 말을 건넨 이는 그의 본명을 알고 있었다.

안두인. 목소리가 속삭였다. 부드러움이 고통을 덮었다. 환영이 심상을 가득 채웠다.

흡사 태양 같았다. 중심부는 새하얗게 타오르고 있었고, 가장자리를 따라 노란색과 자홍색이 섞인 광채가 명멸했다.

안두인.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와 환영이었다. 그렇지만 안두인은 이 환영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걸 깨달았다. 언젠가는, 조만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언젠가가 오면 터질지도 몰랐다.

환영이 안두인을 부르고 있었다. 안두인이 필요하다고.

‘싫어.’ 누구인지 모를 존재에게 안두인이 간청하듯 말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제발.’

안두인..... 돌아온 대답은 완강했다. 목소리의 비탄과 고통이 안두인에게도 절절히 전해졌다.

팔에 무언가가 닿는 촉감이 들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깜빡이자 점점 시야가 돌아왔다. 신다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괜찮아요, 제렉?”

안두인은 주변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둘러보았다. 베라와 벤은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연민과 감사함이 섞인 시선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충격이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다. 비명이나 외침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안두인은 침묵을 불러왔다. 대체 몇 명이나 죽인 거지? 심지어 손에 뭍든—?

안두인은 샬라메인을 처음 보는 듯 뺨히 바라보았다.

칼날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빛은 보이지 않았다.

금빛 광채는 없었다. 시리도록 푸른 광채도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안두인은 검을 내팽개치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신다를 바라보았다. “왜 왔어? 내..... 내 손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신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안두인의 눈이 눈물로 차올랐다.



“여기 계속 있고 싶어.” 로드릭에게, 바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안두인은 샬라메인에 묻은 피를 닦은 후, 오랫동안 동굴에 내버려두었던 오래된 갑옷을 챙겼다. 그는 오두막을 정리하고 염소와 닭에게 먹이를 주었으며, 곡식 자루를

가지런하게 정리했다. 갑옷을 걸친 안두인은 친구의 무덤 옆에 앉았다. 오른쪽에는 살라메인을 놓았고, 왼쪽에는 여우가 앉아 있었다. 녀석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귀를 굽어주는 손길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당신은 이해했겠죠. 고맙습니다. 모든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로드릭의 편지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여우가 느닷없이 일어났다. 녀석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도로를 내다보더니, 곧이어 그 방향으로 내달렸다. 폭력은 안두인의 내면을 울아매는 속박이었다. 신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사슬을 끊어내 주었고, 안두인은 그렇게 펠든 가문과 헤어질 줄 알았다. 잠깐은 그렇게 생각했다. 세 명의 펠든가 사람이 탄 로드릭의 마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안두인은 새삼 놀라지 않았다.

“설마 우리가 제대로 된 식량하고 물자도 안 챙겨서 보낼 거란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니겠죠?” 벤이 마차를 세울 동안 베라가 말을 건넸다.

안두인이 코웃음을 쳤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짐은 가볍게 가져가는 게 편해요.”

“제 빵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말이긴 했다.

“제렉.” 벤이 입을 열었다. “그 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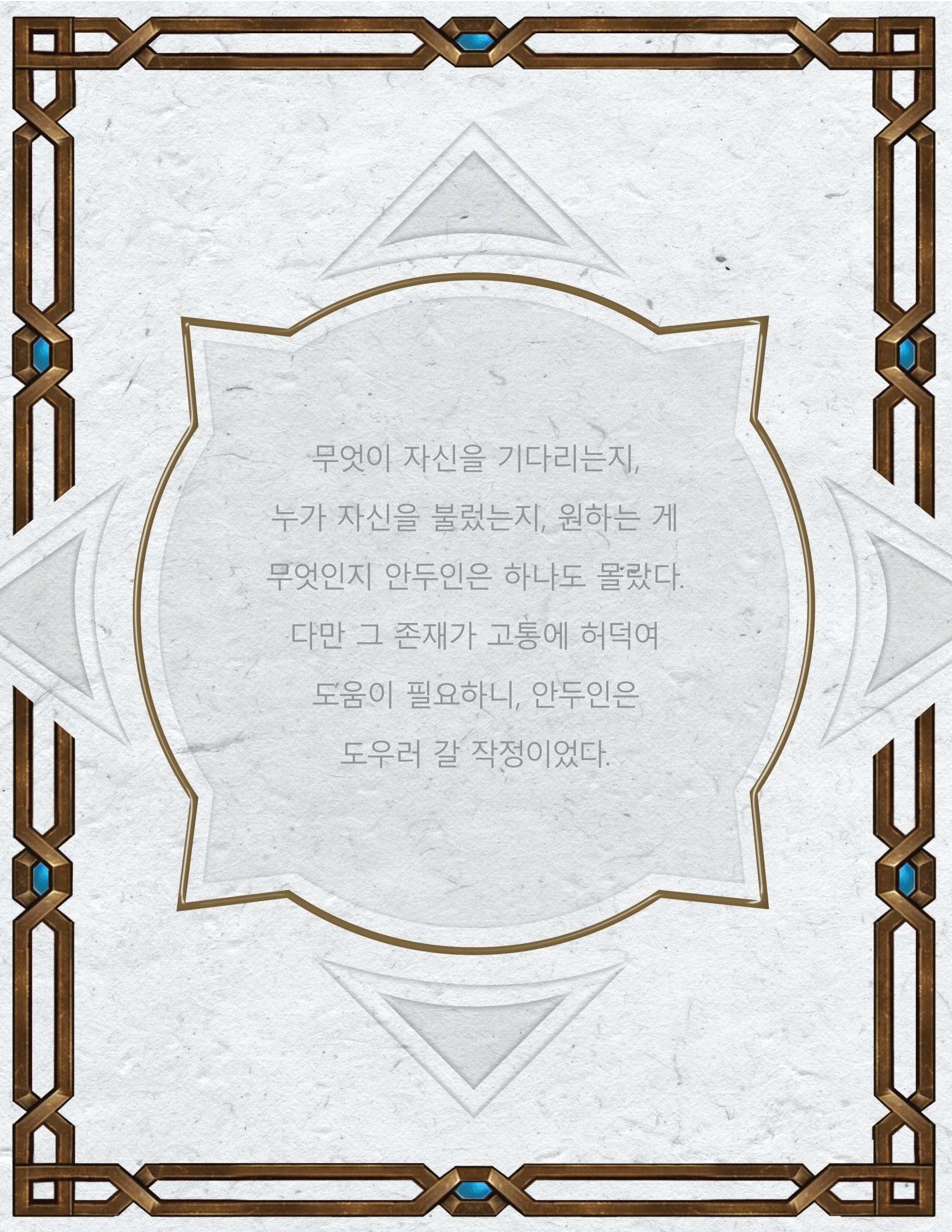
“칼밥 먹는 방랑 모험가가 어디 한둘이니, 벤?” 베라가 빠르게 끼어들었다. “아버지가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질색했던 거 기억하지?”

“괜찮아, 벤.” 희한하게도 정말 괜찮았다. 이제 누가 자기를, 살라메인을 알아봐도 별다른 생각이 안 들었다.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제렉?” 신다가 달려와 물었다. 안두인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돌아올 거예요?”

“머무르긴 어려울 것 같아.”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는지, 누가 자신을 불렀는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안두인은 하나도 몰랐다. 다만 그 존재가 고통에 허덕여 도움이 필요하니, 안두인은 도우러 갈 작정이었다. “그게—” 안두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느새 신다는 안긴 채 그를 꼭 껴안고 있었다. 안두인은 굳은 얼굴로 어색하지만 부드럽게 신다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이제 그만 보내줘, 신다.” 베라의 타이르는 목소리에 신다는 마지못해 안두인을 놓아주었다. 베라는 식량과 물, 물약 등 각종 물건을 가득 담은 가방을 건네주었다.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는지,
누가 자신을 불렀는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안두인은 하나도 몰랐다.
다만 그 존재가 고통에 허덕여
도움이 필요하니, 안두인은
도우러 갈 작정이었다.

안두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고, 망토로 감싼 샬라메인을 집어 들었다.

“무엇을 향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도할게요.”

안두인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지체했다간 영영 떠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황급히 돌아섰다. 세 걸음도 못 가 웬 붉은 빛줄기가 달려와 그를 들이받았다.

안두인은 풀썩 내려앉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여우를 끌어안았다. “여우야.” 사실 여우라는 종을 의도하고 한 말은 아니었다. *사실상 그게 안두인이 붙여준 이름이었고, 본인이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여우는 자신을 껴안은 안두인의 얼굴을 훑어주었다. 여우가 따라와선 안 될 길이었다. 앞으로의 여정을 견디려면 안두인은 저 가족이, 이 여우를 포함한 이들이 안전과 평화를 누려야 했다. 그래서 안두인은 여우를 데리고 가 신다의 품에 안겼다.

“잘 붙잡고 있어. 날 따라오지 못하게. 이제 네가 보살펴주는 거야.”

신다는 눈물로 그렇그렇해진 얼굴로 끄덕였다. 여우는 애절하게 울면서 소녀의 팔을 발톱으로 벽벽 긁었다.

안두인은 홀로 길 위에 섰다. 발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부름을 받았다.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안두인은 여전히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다만 소중한 이들이 그를 믿어주고 있었다. 과거를 받아들일 때까지 분투하는 동안에는 그걸로 충분하리라.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안두인은 자신을 부르는 존재를 찾아갈 생각이었다.

작가 소개

크리스티 골든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로, 25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재직 중이다. 크리스티 골든은 아서스: 리치 왕의 탄생과 실바나스 등 60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하였다. 오디오북 팬이라면 Audible에서 몇몇 블리자드 관련 작품을 크리스티 골든의 내레이션으로 감상할 수 있다. 크리스티 골든은 2017년 정직원으로 채용된 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시네마틱과 컷신, 하스스톤 노래 작사, 오버워치 및 디아블로 캐릭터/직업 발표문 등을 작성하였다.